

농가의 농약보관 허술한 점 너무 많다.

싱그러운 성하(盛夏)의 들녘엔 풍년을 심는 농부들의 손길이 그렇게 바빠 움직일 수가 없고 풍년을 비는 농부들의 손길이 그렇게 정성스러울 수도 없다.

구성진 농요(農謠) 가락은 없어도 소박(素朴)하고 화기(和氣) 어린 웃음소리가 들녘에 가득하다.

정말 바쁜 농사철이며 농약을 취급하는 기회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농약은 병해충 및 잡초를 죽이는 독성을 지닌 약제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은 그 취급과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과학문명의 급진적인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끔 해주고 있지만 취급을 잘못하였을때는 이 문명의 이기(利器)가 흉기(凶器)로 둔갑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다.

농약도 이 범주를 벗어 날 수가 없다.

상당한 투자와 오랜기간을

거쳐 농가에 공급되는 정밀 화학제품이지만 취급을 소홀히 한다거나 보관을 잘못한다면 귀중한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례로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비판하여 부인이 부엌에 놓아 두었던 농약을 먹고 숨졌다든지, 1살짜리 어린아이가 마루에 흘린 농약을 먹고 3일 만에 숨졌다든지, 학교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비판한 여학생이 헛간속에 둔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고 등은 그냥 흘러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허술하게 보관된 농약을 자살용으로 사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바쁜 일손이지만 쓰고 남은 농약은 노약자나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쓰고난 빈병은 수집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겠다.